

지역에서 기본소득 운동이 나아갈 길

이재섭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 학술연구교수

안녕하세요. 저는 제주도에서 공동자원론을 연구하는 연구자입니다. 지난 5년간 제주대학교 공동자원과 지속가능사회 연구센터에서 공동자원론에 대해 공부하면서 마을 공동체의 지속가능성에 주목하며 지역에서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에 대해 연구하였습니다.

기본소득 논문 작성 동기

많은 연구자들이 기본소득은 사회적, 생태적 전환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이행전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에서야말로 시급한 이행전략이 필요합니다. 제주가 지속 가능하기 위해서는 현재 수준의 개발을 멈추고, 생태환경을 잘 지키고 보존해야 됩니다. 그런데 정부는 생태환경을 지키는 데 큰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에게 ‘여러분이 지켜주세요.’라고 얘기했을 때 환경을 지키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저는 회의적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큰 역할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지역 공동체의 주민들입니다. 모든 사회 구성원의 자유와 참여를 실질적이고 평등하게 보장할 수 있는 기본소득의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공동부’에 대한 모든 사회 구성원의 권리에 기초한 몫이 필요하고, 이때 단순히 우리들의 권리에만 주목할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시민이자 주민으로서의 책무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기본소득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는 공동자원Commons이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제주도 뿐 아니라 대한민국 대부분의 지역에서 공동체들이 공동자원을 상실하고 공동체가 해체되는 경험을 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동자원을 어떻게 관리하고 운영할 때 공동체가 지속 가능하며, 지역에서 주민들이 마을을 떠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았습니다. 이 고민은 공동자원과 기본소득, 즉 시민배당으로 연결되었습니다. 저는 마을 공동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에

주목했고, 그 물적 토대가 지역에 있는 공동자원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마을 공동체와 공동자원은 여전히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으며, 그런 측면에서 지역과 마을의 역할은 중앙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수직적으로 내려 주는 기본소득을 기다리는 수동적 대상이 아니며, 오히려 적극적으로 지역의 공동자원을 활용해서 해체 위기의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그 몫의 일부로 시민배당을 실현할 수 있다면 공동자원과 공동체도 지속 가능하리라는 고민들을 논문에 담아냈습니다. 그렇게 지난 2월에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과 기본소득론의 확장: 조세론적 기본소득론의 한계와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해결 방안」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완성하였습니다.

논문 소개

제 연구는 공동자원론에 입각해 기본소득론에 현실성을 부여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이번 대선을 통해서도 일부 확인했듯이 조세론적 기본소득론은 한계에 직면해 있습니다. 저는 조세론적 기본소득론의 한계를 제시하고, 기본소득론을 확장할 수 있는 대안으로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을 검토할 필요성에 대해 제안하였습니다. 물론 기본소득론은 현실 사회의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고, 실질적 자유를 증진할 수 있는 효율적 정책이기는 하지만 현실성을 확보하는 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논의는 ‘나와 공동체, 공동자원은 연결되어 있다.’라는 자각을 일깨울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지역을 둘러싼 공동자원과 그 공동자원을 중심으로 삶을 이어온 공동체입니다. 공동의 것을 공동체로 돌리고, 자율적 생활 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결국 공동자원을 기반으로 살아온 공동체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공동자원을 관리하는 가장 효율적인 방안이 되기도 합니다.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은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잃어버린 공동자원을 회복시켜줄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시민배당이 지급된다면 공동체와 공동자원과의 관계가 되살아나고, 둘의 연결 고리는 더욱 촘촘해질 수 있습니다. 모두의 권리와 책무를 바탕으로 한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은 사회적 합의 도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조세론에 입각한 기본소득 논의도 탄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연구에서는 공동자원과 시민배당의 층위에 대해 논의하고 있습니다. 먼저 국가나 중앙 정부 단위에서는 주로 조세를 기반으로 기본소득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지방 정부 같은 경우는 시민과 도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제주 같은 경우는 환경보전기여금이라든지 지하수, 천연자원 등의 많은 공동자원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활용한다면 시민배당이 가능할 것입니다. 이는 알래스카 주정부의 영구금배당금의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은 마을 공동체입니다. 유독 제주도에는 마을의 공동자원이 잘 보존되어 있으며 주민들에 의해서 관리되고 수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마을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자원도 없고 자산도 없어서 마을의 운영을 멈췄던 경험을 가지고 있는 마을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잘 운영되는 마을의 사례를 통해 시민배당의 가능성에 대해 모색해 보려 하였습니다.

가이 스탠딩은 ‘기본소득은 우리에게 부과된 환경 비용에 대한 부분적 보상으로 사회 정의의 문제

로도 이해할 수 있는 면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주도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는 환경보전기여금은 도입되어야 하며, 도입된다면 환경수용력과 도민의 삶의 질이 같이 향상될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그리고 환경보전기여금의 재원 중 일부가 도민들에게 배당되면 환경배당의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민배당이 실현되면 제주도민들도 모두가 아름다운 제주를 지키기 위한 책임 있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논의해야 할 지점들이 있습니다. 공동자원의 시각에서 시민배당을 바라볼 때 매우 다양한 공동 자원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다양한 분배 구조가 존재합니다. 중요한 것들은 공동자원 이용의 정당성을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왜 이게 주민들의 것인지, 왜 제주도민들의 것인지, 왜 대한민국 사람들의 것인지를 문제들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즉, 수익에 대해 분배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주체의 문제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바람이 누구의 것인지에 대한 문제도 논쟁의 대상이지만, 마을 내 수익을 어떻게 분배하는지도 마을에 따라 다른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고민은 필요하지만 기존의 마을들은 마을 공동체가 유지되어 오는 데 있어서 주민들이 어떤 기여를 했느냐에 대해 묻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참여소득과 구분되는 지점입니다. 참여소득은 개인에게 소득을 주기 위해 공동체 내 일정한 역할을 부여하고, 개인이 올바르게 수행했는지에 대해 감독을 해야 합니다. 이에 반해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의 중점은 공동체에 있으며, 공동자원의 지속 가능한 관리와 운영에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공동체 내에 존재하면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역할을 감당해 내면 됩니다. 이는 별도의 생산을 위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차원과는 다른 형태로 보아야 합니다. 결국, 공동자원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와 마을 공동체의 협력이 요구되며, 시민배당이라는 시민의 권리와 시민이 지역에서의 역할들을 담당했을 때 공동자원도 유지되고 마을 공동체도 지속 가능해질 수 있으며, 그 안에서 우리의 삶도 지속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제주도의 마을 사례를 통해 논의를 진행했습니다.

이 연구는 공동자원론을 기반으로 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역공동체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이며, 왜 시민배당이 필요하고, 이때 공동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주목하였습니다. 지역의 구성원들은 공동체의 일원으로 지역의 공동자원 관리와 유지,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 필요성에 공감하고, 자신이 맡은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할 의지가 있는지를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관심과 노력이 공동자원을 지속가능하게 유지하고 관리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개인이 늘어나야 마을 공동자원이 관리되고, 마을의 자치가 시작될 것입니다. 조세를 기반으로 한 기본소득은 중앙 정부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동자원을 활용한 시민배당 논의를 활성화해야 함을 제안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마을의 기반이었던 공동자원을 상실한 공동체는 예로부터 끈끈하게 이어져 내려온 공동체성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의 공동자원은 단순히 공동의 자산이 아닌, 마을의 관계를 이어온 연결 고리였습니다. 공동자원을 통해 끊어진 마을과 사람들을 연결해야 지역에서의 삶도 되살아날 것입니다. 공동자원론에 입각한 시민배당을 통해 마을 공동체가 공동자원을 새롭게 인식하고, 공동체의 활성화를 통해 마을의 자치를 이루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바람과 기대 및 향후 계획

비록 제주라는 지역에서 생활한다는 이유로 직접적인 참여는 하지 못하고 있으나 네트워크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토론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네트워크의 다양한 논의들이 제게는 큰 자양분이 되었고, 앞으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살고 있는 제주에서 ‘기본소득 세미나’를 진행한 바 있으며, 학회 및 다양한 공간에서 기본소득을 알리고, 지역에서 기본소득 논의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지역에서의 기본소득 논의는 각 지역이 처한 환경과 여건의 특수성으로 인해 세부적인 논의로 이어지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저는 향후 네트워크가 지역 네트워크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의 특수성에 기반한 지역에서의 기본소득 연구와 논의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제주라는 지역에서의 연구를 꾸준히 이어가려고 합니다.

저는 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공동체와 공동자원에 지속가능성에 대해 주목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를 시민배당으로 연결하면서 탈성장 문제와 공동체의 돌봄 문제로 이어져야 함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문제의식을 통해 공동자원과 공동체, 돌봄과 시민배당의 연결에 대해 고민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론적 논의와 제주라는 지역에서 실시되고 있는 공동체 차원의 노력을 결부시키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가적 기본소득의 실현에도 작게나마 기여하고자 합니다.